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수경* · 이형실**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Lim, Soo-Kyoung* · Lee, Hyong-Sil**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Chung-Ang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otal of 900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Guri, Geonggi-Do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data collected from 874 students (557 male and 317 female student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followings summariz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students in school adjustment. Secondly, the study reveal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students in self-esteem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Thirdly, this study provided clear evidence that students with high self-esteem and clos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schoolmates adapt to school life better than those with low self-esteem and distant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schoolmates. Fourthly, students with high self-esteem and clos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schoolmates displayed higher adaptability to school life, and as for male students, close relationship with schoolmates was the most prominent factor which helps them adapt to school life better while female students' adaptability to school lifewas mainly affected by relationship with parents.

Key Words: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부모와의 관계 (relationships with parents),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s).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도기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학교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가치관 및 태도를 발전시키는 학습의 장이며,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며 대인관계의 기술을 익히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중요한 성장 환경인 학교생활에서의 원만한 적응은 성인이 되어 경험하게 될 사회생활의 중요한 발판이 된다. 반면에 학교에서 대인관계나 생활면에서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으로 긴장, 갈등, 절망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며, 이로 인하여 약물 중독, 우울증, 자살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이미정, 2001). 이제 학교적응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갈수록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확대되고 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학교는 그들이 올바르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타인과의 올바른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요인은 개인이 속해 있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학교, 사회 환경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요인에는 지능이나 기질 같은 유전요인과 성장발달 과정에서 형성되는 심리요인이 포함된다(고정자, 2003).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사회요인으로는 친구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개인 정신건강의 중심이 되는 요인이다

(류광식, 2002).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삶의 윤택유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김금숙, 2003).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복순, 1994; 강민정, 1999; 유복귀희, 2003).

둘째, 가족요인인 부모와의 관계 역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이 접하는 환경 중에서도 가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환경으로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핵가족과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나친 보호와 간섭은 자녀의 성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아이들은 이전에 비해 영·유아기부터 학원이나 보육기관에 맡겨지면서 애정결핍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셋째, 친구관계(friendship)는 또래관계(peer relation)속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서, 또래관계가 비자발적인 2차적 집단으로 구성원들의 수가 많고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낮은 관계로 정의 되는 반면에, 친구관계는 상호선택에 의한 친밀한 양자관계로서 또래관계와 비교해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은희, 2005). 안정적인 친구관계는 정서적인 지지,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Ladd & Kochenderfer, 1996).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환경적인 면 등의 요인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 아동기에는 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또래나 아동의 부모 간 친분관계에 의해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회적응 능력을 배우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래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Rowe, 1984). 그러나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과 더불어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어 나간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대인관계는 부모에서 또래집단으로, 부모의 의견보다는 또래집단인 친구의 말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김금순, 1997).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단일요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단편적인 연구에 치우쳤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남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특성과 개별성을 고려하고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 학교생활 적응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시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사회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인성을 기르기 위한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청소년은 그들이 경험하는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한다(주현정, 1998).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의 반 이상을 학교에서 생활하며 학교 내의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할 것을 요구받는다. 학교생활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는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적응은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의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인 성, 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등과 학교생활적응을 다루고 있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의 개인요인으로 주로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등을 연구하였고, 가정요인으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부부관계 등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요인으로 또래 및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셋째,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의 요인인 스트레스,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단일 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를 포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

으므로 남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학교생활적응 관련 요인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가치, 태도, 감정(Coopersmith, 1967; Harter, 1983)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의 적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감 형성 및 창조성과 생산성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감 저하 및 무능력감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김희화와 김경연(1999)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청소년기의 중요한 타인으로는 부모, 가족, 교사, 또래집단, 주변의 성인들이 포함된다(이미령, 1996).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의 대인관계 즉,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과의 만족스러운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긍정적인 자아를 소유한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기 속에 긍정성, 정직성, 책임감과 생활에 대한 보람과 희망의 감정이 넘치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방어적 행동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진실하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사람이다(이기복, 2002). 자아존중감은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은경, 1995; 한미라, 1996).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김정선, 1996; 최인경, 2001; 노선, 2003). 반면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

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김춘례, 1992; 이혜숙, 1999). 강민정(1999)의 연구에서는 신체능력자아와 신체외모자아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복순(1994)과 이광자(199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2) 부모와의 관계

Fishbei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문화양식의 하나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양육하고 가르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하고, 가족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문화적 배경, 부모-자녀의 개인적인 요소와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가정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삶의 공동체이며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환경으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아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족관계가 약화된다는 것은 곧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의 저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가족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어떠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습득하여 점차 어떠한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이효정, 2002).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녀는 점차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권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야기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과 자녀가 관심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가 어긋나게 되어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녀는 부모가 상담 능력이 없다고 인식한다(김양희, 2000).

유안진과 서봉연(1982)은 부모의 과잉보호는 수줍음, 불안, 초조감을 갖게 하고 신경질적이며 남에게 의존하려하며 열등감 등의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부모가 엄격하고 지배적이면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자신감과 용기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사회성이 발달하고 협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만, 거부적인 부

모의 자녀는 반항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잔인하고 공격적이라고 하였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Rosenberg(1965)는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고, Coopersmith(1981)는 가족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조승자, 2004).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계숙(2005)은 성취압력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높다고 보고하였고, 최경자(2002)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더 자율적이고 기대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장원재(2003)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 있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친구관계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집단에 소속되어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생후 초기에는 주로 가족과 많은 의사소통을 하지만, 점차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친구관계라고 할 수 있다.

Damon(1977)은 친구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며 서로 이해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감정, 비밀을 이야기하는 등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돕고 심리적으로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이며 양방향적인 관계라 하였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와의 거리가 생기면서 가장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또래와의 관계로서, 그 중 친한 친구와의 관계는 그들의 정서적인 지지자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친구관계는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며, 그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 생활

할 때에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한다(한진리, 2002).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부모와 형제관계와는 또 다른 사회성을 발달하도록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하도록 도와준다. 친구는 공통적인 관심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을 주고, 성인의 압력이나 간섭에 대항하는 힘을 주는 준거집단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김미란, 2002).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를 보면, 친밀감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날 뿐 성별에 따라 친구관계에 차이가 없었다(윤미경, 1998), 친구관계의 하위영역인 도움, 인정, 친밀감, 만족감, 정서적 안정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과 경쟁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선영, 2001). 배선영(1999)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관계에서 친밀감, 정서적 안정을 포함하여 사회 정서적 지원을 얻는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구리시 중학교 2학년 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부실 기재된 6부를 제외한 나머지 874부(남 557명, 여 31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와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학생	557	(63.7)
	여학생	317	(36.3)
	계	874	(100.0)
가정 형편	상	84	(9.6)
	상중	219	(25.1)
	중	450	(51.5)
	중하	80	(9.2)
	하	16	(1.8)
	무응답	25	(2.9)
	계	874	(100.0)
가족 유형	부모+자녀	713	(81.6)
	조부모+부모+자녀	76	(8.7)
	부+자녀	20	(2.3)
	모+자녀	32	(3.7)
	기타	16	(1.8)
	무응답	17	(1.9)
계	874	(10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33	(3.8)
	100만원~200만원 이하	158	(18.1)
	200만원~300만원 이하	196	(22.4)
	300만원~400만원 이하	177	(20.3)
	400만원~500만원 이하	102	(11.7)
	500만원 이상	94	(10.8)
	무응답	114	(13.0)
계	874	(100.0)	

2. 측정 도구

1)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김용래(1993)가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을 부여하였고,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연령	35~40세 이하	67	(7.7)	270	(30.9)
	41~45세 이하	489	(55.9)	463	(53.0)
	46~50세 이하	240	(27.5)	95	(10.9)
	51~55세 이하	42	(4.8)	22	(2.5)
	55~60세 이하	6	(0.7)	2	(0.2)
	무응답	30	(3.4)	22	(2.5)
계	874	(100.0)	874	(100.0)	
부모님 의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6	(1.8)	12	(1.4)
	중졸	26	(3.0)	45	(5.1)
	고졸	380	(43.5)	480	(54.9)
	대졸	326	(37.3)	257	(29.4)
	대학원 이상	65	(7.4)	25	(2.9)
무응답	61	(7.0)	55	(6.3)	
계	874	(100.0)	874	(100.0)	
부모님 의 직업	가정주부·무직	10	(1.1)	381	(43.6)
	생산직·기능직	177	(20.3)	43	(4.9)
	판매직·서비스직	129	(14.8)	146	(16.7)
	사무직	288	(33.0)	110	(12.6)
	전문직	70	(8.0)	44	(5.0)
	기타	155	(17.7)	113	(12.9)
	무응답	45	(5.1)	37	(4.2)
계	874	(100.0)	874	(100.0)	

2) 자아존중감에 대한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10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을 부여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1점을 부여하였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3)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척도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BI(Parent Bonding Instrument)의 14문항을 수정하여 8문항으로 재구성한 이정선(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을 부여하였고,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낮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4) 친구관계에 대한 척도

선행연구(Berndt et al., 1995; Berndt et al., 1993; Berndt et al., 1986; Parker et al., 1993; 이은혜 등, 1999)에서 사용한 친구관계에 대한 기능적 특성 척도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척도를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친구관계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을 부여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1점을 부여하였다.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낮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WIN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fl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차이

학교생활적응은 평균 77.45점(범위 25-125점)으로 나타나 척도의 중간 값(75점)으로 볼 때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학교생활적응은 중간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

<표 3>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차이

	전체			남			여			t
	N	M	SD	N	M	SD	N	M	SD	
학교생활 적응	836	77.45	14.41	533	77.51	15.10	303	77.36	13.14	.14
자아존중감	864	30.63	4.30	548	30.70	4.60	316	30.50	3.71	.68
부모와의 관계	868	29.95	6.93	553	29.97	6.80	315	29.93	7.17	.08
친구관계	842	64.52	10.92	536	62.88	11.01	306	67.40	10.14	-5.89***

*** p<.001

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평균 77.51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77.36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학교생활적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4$).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 한다(정유진, 1999; 이해령, 2000)는 연구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배기명, 1983)는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평균 30.70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30.5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68$).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고복순, 1994; 이광자, 1998)와 일치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평균 29.97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29.93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8, p>.05$).

성별에 따른 친구와의 관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평균 62.88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67.4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친구와의 관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친구관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5.89, p<.001$).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를 사용하여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요인별로 상, 중, 하 집단 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요인에 따라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4),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84.54점으로 나타났고 보통인 집단은 77.75점,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69.25점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에 따라 각 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2.87, p<.001$). 사후검증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의 집단과 보통인 수준의 집단, 높은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보통인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학교생활적응 평균이 84.17점으로 나타났고, 보통인 집단은 77.59점,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58.08점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4.72, p<.001$). 사후검증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의 집단, 보통인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인 집

〈표 4〉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집단 구분	자아존중감			F
		N	M	SD	
전체	상	109	84.54 ^a	14.72	32.87***
	중	613	77.75 ^b	13.69	
	하	106	69.25 ^c	14.08	
남	상	42	84.17 ^a	17.81	14.72***
	중	471	77.59 ^a	14.49	
	하	12	58.08 ^b	11.35	
여	상	32	83.09 ^a	9.64	12.31***
	중	236	77.92 ^b	13.20	
	하	35	68.37 ^c	11.23	

*** $p<.001$

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상인 집단은 학교생활적응 평균이 83.09점으로 나타났고, 중인 집단은 77.92점, 자아존중감이 하인 집단은 68.37점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2.31, p<.001$). 사후검증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의 집단과 보통인 수준의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보통인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도 남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김혜경, 1999; 심수정, 2003; 김금숙, 2003)와 일치한다.

2)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 부모와의 관계가 상인 집단은 85.71점으로 나타났고, 중인 집단은 77.11점, 자아존중감이 하인 집단은 69.33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65.63, p<.001$). 사후검증 결과 부모와의 관계가 높은 수준의 집단과 보통인 수준의 집단, 높은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가 보통인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상인 집단은 학교생활적응 평균이 85.44점으로 나타났고, 중인 집

〈표 5〉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집단구분	부모자녀관계			F	
	N	M	SD		
전체	상	177	85.71 ^a	14.91	65.63***
	중	518	77.11 ^b	12.65	
	하	135	68.33 ^c	13.76	
남	상	104	85.44 ^a	16.69	34.53***
	중	352	77.37 ^b	13.05	
	하	73	67.52 ^c	15.32	
여	상	58	85.81 ^a	11.91	29.54***
	중	196	77.19 ^b	11.95	
	하	47	67.75 ^c	12.23	

*** $p<.001$

단은 77.37점, 부모와의 관계가 하인 집단은 67.52점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집단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4.53, p<.001$). 사후검증 결과 부모와의 관계가 높은 수준의 집단과 보통인 수준의 집단, 높은 집단과 낮은 수준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가 보통인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상인 집단은 학교생활적응 평균이 85.81점으로 나타났고, 중인 집단은 77.19점, 부모와의 관계가 하인 집단은 67.75점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9.54, p<.001$). 사후검증 결과 부모와의 관계가 높은 수준의 집단과 보통인 수준의 집단, 높은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가 보통인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조승자, 2004; 김승봉, 2005)

와 일치한다.

3) 친구관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친구관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6), 친구관계가 상인 집단은 86.86점으로 나타났고 중인 집단은 77.85점, 자아존중감이 하인 집단은 65.00점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친구관계에 따른 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76.83, p<.001$). 사후검증 결과 친구관계가 높은 수준의 집단과 보통인 수준의 집단, 높은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친구관계가 보통인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친구관계가 상인 집단은 학교생활적응 평균이 92.41점으로 나타났고, 중인 집단은 79.29점, 친구관계가 하인 집단은 66.84점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친구관계에 따른 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8.81, p<.001$). 사후검증 결과 친구관계가 높은 수준의 집단과 보통인 수준의 집단, 높은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친구관계가 보통인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표 6> 친구관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집단구분	친구관계			F
	N	M	SD	
전체	상	115	86.86a	76.83***
	중	587	77.85b	
	하	106	65.00c	
남	상	39	92.41a	58.81***
	중	368	79.29b	
	하	39	66.84c	
여	상	39	83.31a	12.90***
	중	219	77.24b	
	하	37	68.81c	

*** $p<.001$

남자 청소년은 친구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친구관계가 상인 집단은 학교생활적응 평균이 83.31점으로 나타났고, 중인 집단은 77.24점, 친구관계가 하인 집단은 68.81점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친구관계에 따른 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2.90, p<.001$). 사후검증 결과 친구관계가 좋은 수준의 집단과 보통인 수준의 집단, 높은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친구관계가 보통인 수준의 집단과 낮은 수준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은 친구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정운, 2000)와 일치한다.

3.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35$ 이다.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9, p<.001$),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의 관계($\beta=.27, p<.001$), 자아존중감($\beta=.20, p<.001$)로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38$ 이다.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학

〈표 7〉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체		남		여	
	B	β	B	β	B	β
자아존중감	.66	.20***	.58	.18***	.75	.22***
부모와의 관계	.56	.27***	.50	.22***	.60	.33***
친구관계	.51	.39***	.68	.48***	.32	.25***
F	142.43***		103.14***		40.72***	
R ²	.35		.38		.30	

*** p<.001

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8, p<.001$),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의 관계($\beta=.22, p<.001$), 자아존중감($\beta=.18, p<.001$)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다른 요인보다 친구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친구관계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30$ 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여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3, p<.001$), 그 다음으로는 친구와의 관계($\beta=.25, p<.001$), 자아존중감($\beta=.22, p<.001$)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다른 요인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 청소년들은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구리시 중학교 2학년 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부실 기재된 6부를 제외한 나머지 874부(남 557명, 여 317명)의 자료를 가지고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 그리고 친구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은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친구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부모와의 관계, 자아존중감이었다. 남자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친구관계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남자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친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학생은 다른 요인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기술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방법으로의 역할놀이를 해 볼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할 때 자신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부모교육은 부모역할을 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으로 자녀발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역할을 보다 만족스럽게 수행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준다(정옥분, 2002).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모와 친구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과의 만족스러운 경험은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그들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사는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역과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적응은 개인의 욕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수용되거나 만족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행동으로 어떤 시기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자기표현에 자유로운 요즘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성을 인정하여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교육과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그들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구리시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전체 청소년 집단의 결과로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 외에도 근로 청소년과 보호기관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집단,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를 조사하였으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살펴보고, 즉,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및 원만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의 향상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정교육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정(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복순(199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태도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 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변인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공계숙(2005).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금순(1997). 학교생활 부적응 여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 경성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금숙(2003).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란(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희(2000). 가족관계학. 서울: 수하사.

김정선(1996).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윤(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춘례(1992).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업성취의 관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1999).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화, 김경연(1998). 청소년 초기의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4), 59-69.

노 선(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자아상태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광식(200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기명(1983).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른 적응문제 및 적응기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수정(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란(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복귀희(2003). 아동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미경(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자(1998).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복(2002). 심성수련 활동이 학교생활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정(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학교상황과 청소년우울증과의 관계: 자존감을 매개 변인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영(2001). 아동 및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과 학교적응.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희(2005).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령(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숙(199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효정(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원재(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소외감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유진(1999). 자기성장 집단 상담이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유진(2000).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승자(2004).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자(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인경(200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라(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진리(2002). 아동의 친구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

Damon(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Fishbein(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Russell.
 Harter, S.(1983). The development of the self-system. In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vol. 4). New York: Wiley.
 Hartup, W. W.(1983). Peer relations. In Hetheringt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Ladd & Kochenderfer(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Rosenberg(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 Leonard I. P.(1978). Social Clas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and Adul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53-55.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관련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의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874(남 557명, 여 317명)의 설문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수업적응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환경적응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관련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다른 요인보다 친구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9월 6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9월 19일